

## 최적의 SLS 공정기술 개발

〈대기업 부문〉

삼성전자(주) 강명구 수석 연구원

**고**육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결정화 기술 양산화에 성공한 삼성전자(주) 강명구 수석 연구원과 크레인 분야의 신기술 개발로 매출증대에 기여한 대성중공업(주) 김성길 대표이사를 '이달의 엔지니어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부문 수상자인 삼성전자(주) 강명구 수석 연구원은 중소형 디스플레이 분야의 기술개발에 전념해온 엔지니어로 SLS 기술 양산화 및 관련 제품 개발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 수석은 결정화 후 입자 크기가 작고 미세 구조의 조정이 불가능했던 문 제점을 개선하여 입자의 크기와 결정성을 향상시키는 최적의 SLS 공정기술을 개발하였다. SLS 기술은 비정질 실리콘을 결정질 실리콘으로 바꿀 때 레이저 마스크를 이용하여 측면 방향으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기술을 말한다. 또한, 강 수석은 SLS 기술을 캐나다 RIM사의 스마트폰에 적용하여 100만대 이상을 양산하는데 성공함으로써 SLS 기술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등 우리 나라가 결정화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강 수석은 SLS 기술을 바탕으로 초고 해상도 제품 등 차세대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1969년 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로 설립된 삼성전자(주)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속에서도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기술개발, 체계적인 인재양성을 통하여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 인터브랜드사의 조사결과 2006년에는 기업 브랜드 가치가 162억 달러로 전제 20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 크레인 분야 신기술 개발


〈중소기업 부문〉

대성중공업(주) 김성길 대표이사

중소기업 부문 수상자인 대성중공업(주) 김성길 대표이사는 크레인 분야의 연구개발에 전념해온 전문 엔지니어로 국내 최초로 신기술이 적용된 크레인을 자체 설계·제작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대표는 '중량물 회전장치' 기술을 개발하여 오버헤드 크레인과 턴오버 크레인에 적용함으로써 대성중공업(주)이 2007년 1천500만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김 대표가 개발한 중량물 회전장치는 무거운 중량물의 운반은 물론, 중량물을 뒤집거나 임의의 각도로 회전을 가능하게 하는 등 크레인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김 대표는 2006년 6월부터 필리핀 수빅항에 건설 중인 조선소에 오버헤드 크레인 및 턴오버 크레인 전량을 수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신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1994년에 설립된 대성중공업(주)은 호이스트 크레인을 제작하는 전문업체로 현대삼호중공업(주), 동서발전, 남부발전 등의 국내 대기업에 기자재 공급자로 등록되어 크레인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품질개선 활동에 주력하여 ISO 9002, 14001, 18001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향후 호이스트 크레인 업계의 글로벌 메이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달의 엔지니어상'은 산업기술 인력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현장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2년 7월부터 시상해오고 있으며,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엔지니어 각 1인을 선정,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과 트로피, 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하고 있다. 



글 | 편집실